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쟁과 한국안보

박응수* · 고광섭**

*해군대학 · **목포해양대학교

U.S. and China's Military Competition in east-Asia and Korea's Security

Eung-soo Park* · Kwang-soop Ko**

*Naval War College · **Mokpo Maritime University

E-mail : esgsspark@hanmail.net

요 약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마-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China has definitely been arising as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By looking at general national power it seems that China's national prestige in 2011 is already way beyond Asia and even it closely catches up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most powerful nation over the world. The United states-centered world political order has begun to struggle by China's growth. Moreover, there has been an earnest competition arisen for the east-Asia sea supremacy between previous U.S. hegemony and arising China's power.

East-Asia's ocean is the stage for this strife and it grows more serious. At this point, South Korea, one of the east-Asia country seeking the nation's stability and prosperity through its ocean, has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is strife among the super powers of the world.

The Author will closely examine the backgrounds and future opportunities of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power competition towards the security status of east-Asia especially South Korea.

① 키워드

② 중국의 부상, 공세적 현실주의, 패권경쟁, 동아시아 안보.

Ⅰ. 서 론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great powers) 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평가요소인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과학기술력, 국제적 평판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의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12년 1월 5일「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 : 21세기 국방우선순위)」이라는 제목하의 신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여 미국의 군사중점을 과거 유럽이나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고,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관계강화에 나설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국제정치현상이다. 관련 이론에 따르면 향후 도전국인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에 비례해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분쟁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에서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분쟁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해양에서의 마중 군사 경쟁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그 배경, 향후 전망, 그리고 이러한 마중의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강대국의 속성과 국제정치이론

2.1 국제정치이론개요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질서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관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중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 안보문제를 분석하는 국제 정치이론으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다른 관점의 국제정치이론에 비해 설명력이 높다 현실주의관점의 이론 중 냉전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으로 신현실주의 이론이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은 크게 '방어적(defensive) 현실주의'와 '공세적(offensive) 현실주의' 이론으로 대별되는 데 강대국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보다 설명력이 있는 이론은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이다.〔1〕 이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 세이머(John. J. Mearsheimer)가 2001년에 발간한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이라는 저서를 통해 제시한 국제정치 이론이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전개를 위해 미어세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2.2 공세적 현실주의의 이론의 기본 가정

미어세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 이론이 전제하는 기본 가정은 크게 다섯 가지다.〔2〕 첫째,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이다. 여기에서 무정부 상태란 혼동이나 무질서에 의해 혼란한 사회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권위체가 없는 독립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강대국이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나 강력한 해군력 등 전 지구적 투사 능력(global reach)은 강대국 지위의 핵심 전제조건이다. 셋째, 어느 나라라도 상대 국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특히 상대국가가 공세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넷째,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안보)이다. 특히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 보전과 국내 정치질서의 자주성을 추구한다 물론 국가들은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체제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패권국이 되어야 자국의 안보가 가장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강대국들은 합리적 행위자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가정들로부터 국가들의 일반적인 행동패턴인 두려움(fear), 자조(self help) 그리고 권력(power, 힘)의 극대화 추구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III.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경쟁배경과 현황

3.1 미-중 경쟁의 배경

미국과 중국의 경쟁배경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공세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본 가정과 강대국들의 행동패턴 힘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power politics)-의 이해가 필요하다. 즉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강대국도 예외 일수 없다.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패권국)은 자국중심의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부상하는 강대국(도전국)은 자국이 보다 많은 힘을 가짐으로써 패권국을 밀어내고 기존 질서를 해체한 후 자국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은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두 나라의 국가목표를 살펴보자

3.1.1 미국의 국가목표

미국의 국가목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발간하는 핵심전략문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통해 미국의 국가목표나 안보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세를 분석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현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5월에 발표 하였는데 이 국가안보전략 전반부에서 "미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원천들을 육성하여 21세기 의 모든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조성해야만 한다(We must now build the sources of American Strength and influence, and shape an international order capable of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부흥시켜 21세기 미국의 국가이익을 더욱 효과

적으로 증진할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제체제를 통해 미국의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범세계적 공약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

또한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으로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1) 미국과 미국 국민,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안전, 2)개방된 국제경제체제 내에서의 미국경제의 강하고 혁신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3)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의 존중, 4)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 그리고 발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의해 유지 발전되는 국제질서 등이다.〔4〕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국가목표는 현재와 같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지속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미국 민의 안전, 미국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의 유지 및 지속성장, 인권이나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존중 등 '미국의 국가이익으로 대변되는 세계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인 인권, 자유, 민주주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전략 목표는 중국을 미국과 유사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미국과 중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1.2. 중국의 국가목표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중국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원칙을 규정한 기본법인 중국의 헌법에서 국가목표를, 그리고 중국의 전략에 대한 주요문서를 통해 국가전략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이 1982년 제정한 중국 헌법의 서언(序言)에는 중국의 국가목표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금후 국가의 근본임무(목표)는……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중국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등소평 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獨裁/人民民主專政)와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종제도를 부단히 정비하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확립하며, 자력갱생하고 분투노력하여 점차 공업·농업·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물질문명을 추동하며……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바 중국의 국가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달성'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도로 문명화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국가전략 중 국가발전전략은 3단계론 전략(三步走 戰略)으로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하고 1987년 제 13차당대회에서 공식입장으로 추인된 이래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3단계중 제 1단계는 1990년까지 온포(溫飽)단계 즉 중국인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 2단계는 2020년까지 1인당 GDP3,000 달러 수준의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달성 즉 부유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건국 100주년인 2050년까지 대동(大同)사회 달성 즉 중국의 최종 국가목표인 '고도로 문명화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즉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5〕 이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이 지난 수 천년동안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여 온 것과 같이 다시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 일당독재하에 지속적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최종적으로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의 중심국가(中國)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다.〔6〕

3.2. 미-중 경쟁의 과정과 현황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과정을 중국이 건국된 1949년부터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구분하여 주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냉전기(1945~1991)

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는 냉전의 계기가 된 이데올로기 즉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미-중 간 주요 충돌로는 1950년~53년의 한국전쟁(6.25전쟁), 1955년~1958년의 1, 2차 대만해협에서 대만의 국민당정부군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전투 시 미군의 개입으로 인한 충돌이다.

한국전쟁 시 미-중간 충돌은 1950년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역전되고, 연합군이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측으로 진격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이 10월 19일 한국에 진격함으로써 현실화 되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원조한다(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미군과 충돌하였다.〔7〕

다음으로 1995년~58년 대만해협에서의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해방군 간 대만해협인근의 도서(島嶼) 쟁탈전시 미군의 개입으로 인한 충돌이다. 당시 중국군의 공격에 위협을 느낀 장제스는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미국은 미 7함대의 항공모함 6척을 포함한 100여척의 군함을 투입하는 한편, 중국군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여 중국군을 굴복시켰다〔8〕

3.2.2. 탈 냉전기(1992~ 현재)

이시기 주요 충돌로는 1995년~6년의 대만해협 위기,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사건과 미-중 군용기 충돌사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간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관할권 분쟁 시 미국의 개입 등이 있다.

첫째, 1995년~6년의 대만해협위기는 통일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하는 중국이 대만 독립움직임과 미국과의 밀착에 반발해 대만 북북 해상에 미사일 발사 등 강력한 군사행동을 취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미국은 특별한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대중국 영향력 감소를 실감하였다.이 사건은 미국의 안보체계 전반을 흔들었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국위협론'의 대두의 시발점이 되었다.[9]

둘째,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은 나토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이 1999년 5월 8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이다. 당시 세르비아 정부군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을 유혈 진압하자 나토군이 군사 작전에 나서는 과정에서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것이다

셋째,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간의 충돌사건은 2001년 4월 1일 오전 9시경 해남도(海南島) 동남쪽 104㎞ 상공에서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 2대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전투기 1대와 충돌, 미 정찰기는 해남도에 비상착륙했고 중국 전투기는 추락하고 조종사가 실종된 사건이다

넷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중국과 주변국의 분쟁에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충돌이다.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은 남중국해에 있는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나이간에 분쟁이,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중국 및 대만과 일본 간의 분쟁이 그 중심에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남중국해를 티베트, 대만에 이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핵심이익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은 2012년 7월 자국 명칭의 난사(南沙)·시사(西沙)·중사(中沙) 군도를 묶어 담당하는 싼사(三沙)시를 출범시켜 행정력을 강화했다. 센카쿠 열도는 현재 중-일 관계를 급냉시키고 미국이 미-일동맹관계를 기초로 개입하기 시작한 있는 핵심분쟁지역이다. 최근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만)과 일본이 물대포 까지 사용하면서 대치하게 되자 2012년 9월 미국이 동·남중국해에 2척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파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우려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개입에 중국에서는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이 개입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10]

미국도 주 북부 다윈에 미군기지 설치, 싱가포르에 해군 연안전투함 배치, 필리핀·베트남 등에 대한 군사적 지원, 미얀마에 대한 접근, 일본·인도와 3각 안보동맹,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래 <그림-1>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현황을 종합 한 것이다.

<그림-1 동아시아 해양 분쟁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12. 7.11

3.3 미-중 경쟁의 원인분석과 전망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제정치에서 최강국 즉 패권국은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자신의 위치를 절대 다른 강대국에 내어 줄 수 없는 '국제정치의 속성' 때문이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국가목표 및 전략이 이념적 정치적으로 상대를 용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이념적으로는 미국은 민주주의,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인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이다 이 체제제는 지난 냉전기간 극한 경쟁을 해왔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끝이났다

정치적으로도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은 선거를 통하지 않는 전제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며, 국가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시 쉽게 군사력을 사용한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권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전쟁을 결정하게 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하기 까지 많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의 전망은 상당기간 경쟁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분쟁의 빈도도 높아 질것이다.

Ⅳ . 미-중 경쟁과 한국의 안보

4.1. 미-중 경쟁이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의 경쟁 특히 군사적 경쟁과 대치가 동아시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안보불안 증가이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감소되었다거나, 중국이 미국의 기존질서에 도전한다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반발 모습은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구조가 현실화 되고 중국에게 미국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지역내 안보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불신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생존을 모색하는 자구노력으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동남아국가들도 10년 전에 비해 42~82%를 증가한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97억, 태국 55억, 인도네시아 54억, 말레이시아 45억, 베트남이 27억 달러를 사용하여 군사력을 파격적으로 증강하고 있다.〔11〕
한편 이러한 미-중 경쟁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한국의 방위비 분담확대를 포함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 같이 미국의 경제침체로 인한 군사비 삭감을 상당부분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와 중국과 미국과의 안보관계의 재설정 필요성이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저하에 따라 지난 50여 년간 일관되게 지속되어온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변화가 불가피하다. 향후 한미동맹은 한국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는 협력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쟁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4.2. 한국의 정책적 대안
미-중 경쟁과 그 경쟁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안보불안에 대처하여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첫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안보의 핵심자산은 '한미 군사동맹'이다. 한국은 이를 굳건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안보자산을 최대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경제가 허락하는 한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 비해 상승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일과 연계시켜야 한다.

Ⅴ. 결 론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지형도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여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구도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과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고 현재와 같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수천년 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아시아지역에서의 역사적 중심국가의 지위를 되찾고 중국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의 영향력과 패권국의 지위가 지속될 것인가?
이러한 경쟁은 역사상 수없이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평화와 안정보다는 분쟁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안보질서가 변화 또는 해체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일 인해 개별 국가들은 다양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서 한국이 취할 자세는 국가안보를 보다 확고히 하고 국가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안보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능력과 안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1〕 John Baylis and Steve Smith and Patrica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4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92~105, 208.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Inc., pp.30~32, 2001.
〔3〕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1. 2010.
〔4〕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7. 2010.
〔5〕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폴리테이아, pp.27~29, 2007.
〔6〕 애런 프리드 버그, 안세민 역, 「패권경쟁」 까치, pp.15~23, 2012.
〔7〕 아마코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사」, 임상범 역, 일조각, p.41, 2003.
〔8〕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p.206, 1998.
〔9〕 Rosalie Chen, "China Perceives America: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 expert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2, No.35, pp.285~297, 2003.
〔10〕 환구시보(環球時報) 2012년 10월3일
〔11〕 서울신문, 2012년 10월 9일.